

# 음악으로 하나되는 '오월음악회'

광주국제교류센터  
27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광주 외국인·시민 함께  
다양한 세계 음악 선 보여



지난해 오월 음악회 공연 모습.

2018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광주의 외국인과 시민 모두가 국적을 초월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제16회 오월음악회를 27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장에서 연다. 이번 음악회 주제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계'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2003년부터 매월 5월, 지역민과 외국인 모두가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오월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월음악회는 광주국제교류센터 음악위원회 'GIC 클라빌레'를 중심으로 지역 전문 음악인들과 외국인 음악가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공연은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미국, 캐나다 등 다채로운 세계 음악을 선



진채리 김도연

보일 예정이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라단조 op. 32',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이여', 헨델의 '파시칼리아', 모젤탈의 '위대하신 주', 앤드류의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등이 준비됐다. 또 시민들이 모인 'GIC 시민합창단'이 한국, 미국 등의 민속노래 모음 무대를 선

보인다. 음악회 마지막 무대는 전 출연진과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바이올린 김도연, 첼로 진채리, 피아노 동수정, 소프라노 박수연, 테너 윤승환 등 지역음악인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음악회 당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글로벌 공감 in 광주, '제11회 세계인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세계 곳곳의 음식과 전통문화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키퍼'를 만나보는 '커뮤니티존'이 꾸려진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의 전통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 및 글로벌 마켓이 열려 다채로운 세계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문의 062-226-273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산문화예술회관 26일  
5월을 만나는 기념음악회  
광주여성필하모니 출연  
클래식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들려줘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광산문화예술회관이 다양한 색채의 민족주의 작곡가로 5월을 만나는 기념음악회를 연다. 26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이달 말까지 광산구가 진행하는 '2018 광산오월문화제'의 일환인 이번 음악회는 '민족음악산책'을 주제로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등장해 무대를 꾸민다. 총감독은 김유정이, 지휘는 조정현이 맡았으며 바이올린 남카라, 소프라노 윤하나,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윤승환,

바리톤 김경호 등이 출연한다. 이날 공연은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op.437',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등으로 채워진다. 또 김성훈의 5·18 교성곡 '빛고을' 중 '사곡', '아아 광주여 5월이여',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클래식 편곡의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마무리한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공연 뒤 받은 감

동만큼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감동후불제'를 실시한다. 모금액은 어려운 이웃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 16일 퓨전국악콘서트 '흥그레 흥그레'로 문을 연 광산오월문화제는 30일 창작판소리 '윤상원 가(歌)'를 마지막으로 공연을 마친다. 문화제 기간 동안 문예회관 로비에서는 '오월 전시'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960-883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김종일전...현대 추상회화 58년 총정리

6월말까지 함평군립미술관  
61년작 '10월의 메모'부터  
근작·설치작품 등 선 보여



50년 넘게 화업을 이어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건 흥미로운 기회다. 따뜻한 청년 시대 작품부터 원숙미가 느껴지는 근작까지 살피다 보면 '한 작가의 초상'이 어렵잖이나마 그려질 지도 모른다. 그 작가가 변화무쌍한 작업 세계를 펼쳐왔다면 그 흥미로움은 배가될 것이다. 양귀비, 장미 등 술한 꽃들이 아름다운 함평 엑스포 공원 내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 추상 미술 58년-김종일전'(6월30일까지)은 평생 추상 미술에 매진해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그의 화려한 색감과 디자인적 요소가 부각되는 작품들에 익숙한 관람객들에게 감성적 중심의 모노크롬 작품과 초기 추상작들은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온다. 홍익대를 졸업하고 1961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첫 전시를 열었던 김종일(전남대 명예교수) 작가의 1961년 작 '10월의 메모'는 갈색을 주조로 한 추상화로 독특한 색감이 눈길을 끈다. 또 'WORK' 시리즈는 자유롭고 강한 터치와 독특한 색감, 밀도를 느낄 수 있는 화면이 인상적이다. 1970년대 '흑색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인 '검정 77-6'은 어렵잖이 보이는 중앙의 사각형 이외에 완전히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어 강렬하다. 1980년대 전반기에 부임하며 교육에도 열성을 쏟기 시작한 김 작가는 검정 중심의 모노크롬 분위기가 어둡게 남아 있는 '축일' 시리즈를 통해 빛과 음양의 조화를 찾기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원색 컬러를 활용해 공간을 구성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한다. 추상회화와 오방색의 한국 전통이 만난 '생성' 시리즈는 수많은 변용을 이루고 한지의 느낌과 자연스레 변하는 물감의 매력을 활용한 작업들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가운데 자리한 설치 작품도 눈에 띈다. 20여년 전 폐교가 될 예정이었던 국민학교에서 얻은 의자에 다채로운 문양



'생성'

과 색깔을 넣은 것으로 투명 유리로 덧씌운 의자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슬하게 변모하는 작품이다. 김 작가는 나이가 들면서 단순함, 자유분방함, 그리고 블랙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화려한 작품 대신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마음가는 대로 작업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블랙 그림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작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추상그룹 '에보꼬'다. 1964년 김작가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에보꼬는 호남은 물론, 한국 추상미술에 발자취를 남겼으며 그는 오랫동안 이사장을 맡으며 에보꼬를 견인했다.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해 마련된 전시로 함평에서 선보이는 첫 대규모 바구산전이기도 하다. 수·토요일 작품 설명도 이뤄진다. 문의 061-320-177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남도의 섬에서 여성의 삶을 보다 전남여성플라자 6월 8일까지 사진전



'장도의 여전사들'

(재)전남여성플라자는 6월 8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전남여성플라자 2층)에서 '남도의 섬에서 여성의 삶을 보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섬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 36점을 전시중이다. 전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바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공동체를 이루어 온 남도 섬의 여성들, 이들의 공동체성을 재조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의 브랜드시책인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2015년부터 '남도의 섬, 여성의 삶' 여성이야기 발굴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성이야기에는 '뚝뚝 빠지는 갯벌에 찌낀 삶의 무게를 딛고

살아온 가우도 어머니', '갯벌 위를 거어가는 갯고동처럼, 구불 구불 생의 포물선을 그리며 가는 소안도 해녀들', '낮에는 일, 밤에는 물과의 전쟁으로 삶을 이어 온 남도의 여자들' 등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완도 여서도와 진도 대마도의 여성이야기를 찾아갈 예정이다. 문의 061-260-7300. /전문기자 ej662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대님의 여정대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성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넒을 위한 행사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과주맛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겨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